

손흥민, “인생 가장 중요한 날”인 UEL 결승에 선발로 뛸까

22일 EPL 맨유와 유로파 결승 토트넘·손흥민 ‘무관 탈출’ 도전 부상 복귀한 손흥민 선발에 관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토트넘은 오는 22일 오전 4시(한국 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에스타디오 산 마메스에서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24~2025시즌 UEL 결승전을 치른다. 토트넘은 지난 2007~2008시즌 잉글랜드 리그컵 이후 17년 만에 트로피 획득에 나선다. ‘주장’이자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도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EPL 득점왕 등을 하면서 세계적인 공격수로 성장했지만, 아직 정상에 오른 경험 없이 ‘무관’이라는 꼬리표가 따른다. 30대 중반을 향하는 이번 시즌에 UEL을 통해 우승한다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다. 다만 손흥민이 선발로 출격해 우승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따른다. 손흥민은 지난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리그 36라운드(0-2 패)를 통해 8경기 만에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달 프랑크푸르트(독일)과의 2024~2025시즌 UEL 8강 1차전(1-1 무) 이후 발 부상 때문에 공식전 7경기를 결장했다. 부상 초기에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빠르게 복귀할 거로 예상됐다. 결장이 길어질 때도 UEL 결승전을 위한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선택과 집중이란 의견까지 나왔다. 그러나 보되/글림트(노르웨이)와의

UEL 4강 2차전까지 결장하면서 부상 회복이 더딘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행히 팰리스전 교체로 복귀를 앞섰고, 17일 애스턴 빌라와의 리그 37라운드 원정 경기(0-2 패배)에선 선발로 나서 74분을 뛰며 맨유전 선발 가능성을 키우는 듯했다. 선수 본인도 UEL 결승전의 남다른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흥민은 최근 영국 매체 ‘가디언’을 통해 “모든 경기가 특별하고 의미 있지만, 이번 맨유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처럼 느껴진다.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난 정말 누구보다 이기고 싶다. 많은 분이 나와 같은 열정을 갖고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신다. 잘 준비한다면 (우승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영국 매체 ‘BBC’를 통해서도 “(맨유전이 열리는) 수요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설레고 있다. 역사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손흥민의 기대와 달리, 선발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과거 2019년 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을 뛴 경험이 있는 손흥민이 선발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이번 시즌 다소 부진한 손흥민의 상황을 고려해 냉정함이 필요할 때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마티스 텔, 히샤를리송, 윌송 오도베르 등이 손흥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며 컨디션이 좋은 다른 옵션들을 언급했다. UEFA도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관련 프리뷰를 통해 “토트넘의 왼쪽 공격 선발이 딜레마”라며 “손흥민이 최근 발 부상에서 복귀했기에 히샤를리송이나 마티스 텔의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대 이하인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경험



과 ‘주장’의 리더십을 갖춘 손흥민이 선발로 나설지,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승부수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뉴시스



전남교육청, 전국소년체전 학생선수 747명 참가 사진경기서 육상 김태반·이하은 2연패 등 ‘금빛 질주 시작’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오는 24~27일 경남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총 35개 종목, 747명의 초·중학교 학생선수가 출전한다고 밝혔다. 전남을 대표한 학생선수단은 본 경기 시작 전 금3, 은1, 동1개를 획득함으로써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17~18일에 사진경기로 시작된 육상 종목에서 목포하당중 김태반 학생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이어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광양백운중 이하은 학생은 멀리뛰기에서 2연패에 올랐다. 특히, 이하은 학생은 “챔피언이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멀리뛰기 정상에 설 수 있어 기쁘다”며, “작년 대회에서 우승한 세단뛰기에서 3위를 기록한 것 또한, 나에게 많은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는 학생선수 개인의 노력에 더해, 헌신적인 지도자의 열정,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정성 어린 지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가 빛어낸 값진 결과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연간훈련비 및 고가장비 구입비 ▲스포츠타일 ▲ 체계적인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경기결과를 넘어 학생선수들의 진로설계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최근 미국 엘라배마주 트로이대학교에 개소한 전남교육청 K-에듀센터를 거점으로, 전남 학생선수들이 스포츠매니지먼트, 스포츠마케팅 등 글로벌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로는 곧 미래의 방향성인 만큼, 모든 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행복하고 즐거운 도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기자

전남선수단,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 성과 빛났다

11종목 147명 참가해 총 73개 메달 획득… 종합 7위 ‘꽤거’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3~16일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한 전남 선수단이 금 14개, 은 28개, 동 31개 등 총 73개를 획득하며 종합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47명의 전남 선수단은 이번 대회 11개 종목에 출전해 육상, e스포츠, 수영 등에서 활약했다. 소림학교 국사랑 선수는 지난해 3관왕에 이어 올해도 육상 800m와 400m 릴레이(T20) 종목에서 2관왕에 오르며 실력을 입증했다. 은광학교 노연희 선수는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오준택 교사의 지속적인 지도 아래 육상 100mB, 200mB(T11) 종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관왕에 올랐다. 덕수학교 강유림 선수는 육상 400m, 400m 릴레이 T20 종목에 참가하여 2관왕에 올랐으며, 구례여자중학교 김수현



선수는 수영 배영 100m, 평영 100m에서 2관왕을 차지하며 전남의 위상을 높였다. 전남교육청은 선수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 참가 선수 및 보조원(감독, 코치, 인솔자) 경비 지원 ▲ 훈련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아낌

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전남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장애학생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신체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혜정 기자

침묵 깬 이정후, MLB 캔자스시티전서 1타점 2루타 폭발 시즌 13호 2루타… 타율 0.276 30타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호쾌한 장타를 터트리며 침묵에서 벗어났다. 이정후는 20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지난 18~19일 애슬레틱스와 2경기에서 8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이정후는 이날 2

루타를 쳐 막힌 혈을 뚫어냈다. 시즌 타율은 0.276을 유지했고, 타점은 30개가 됐다. 이정후는 상대 왼손 선발 투수 크리스 부빅을 공략하는 데 애를 먹었다. 1회말 2사과 4회말 1사에서 부빅의 싱커에 방망이를 냈으나 각각 2루수 땅볼,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는 6회말 2사 1루에서 부빅의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스윙퍼에 속아 헛스윙 삼진에 그쳤다. 하지만 득점권 상황에서 이정후는 달랐

다. 매섭게 방망이를 돌려 적시타를 뽑아냈다. 팀이 1-2로 뒤진 8회말 2사 1, 2루에서 등장한 이정후는 우완 사이드암 존 슈라이버의 스윙퍼를 잡아당겨 1루수 키를 넘기는 1타점 2루타를 작렬했다. 시즌 13번째 2루타다. 그러나 후속 타자 맷 채프먼이 포수 파울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그대로 이닝이 종료됐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28승 20패)는 9회초 한 점을 헌납하면서 결국 1-3으로 졌다. 이날 패배로 4연승에 실패했다. /뉴시스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500년의 흥겨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

백오포탈축제

2025.5.29.토 ~ 6.1.일

단오마당(단오제전수교육관)

축제마당(법성포뉴타운문화광장)